

평협소식

2007 제11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7.11. 5 발행인 : 한홍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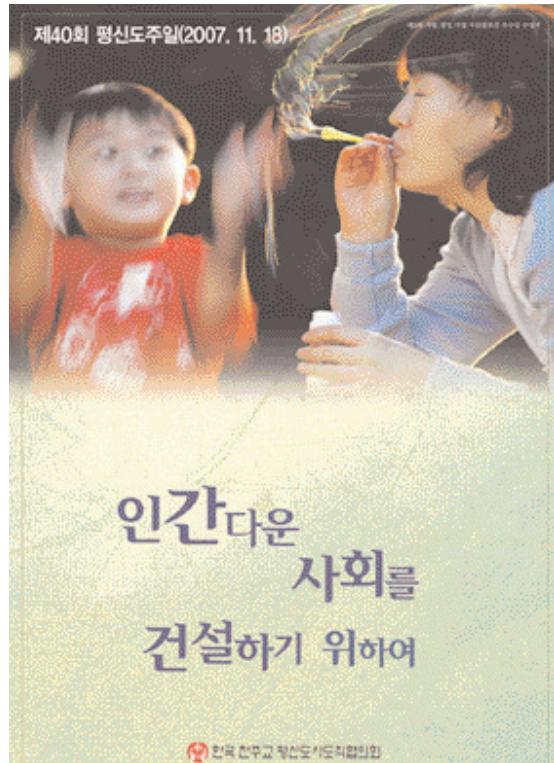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제40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이 땅에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발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11월 18일 제40회 평신도주일을 앞두고 강론자료를 배포하고,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평신도들은 무엇보다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평협은 ‘이 땅에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목의 강론자료에서 “우리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회원 단체〉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동정
- 2007년도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와 우리 이웃이 모두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전제하고 “먼저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며 “우리 신자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낙태허용법률 폐지 ▲사형제도 폐지 ▲올바른 생명윤리 확립 등에 힘써야 한다고 이 강론자료는 강조했다(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전문 30쪽).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3차 회의 광주에서 열어, ‘평협40년 백서’ 발간키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상임위원회 2007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평협 40주년 행사를 비롯한 2008년

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전국 각 교구 평협 회장단과 상임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내년 중 ‘평협백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1차와 3차 상임위에서 개최한 바 있는 ‘한국교회와 평신도사도직’ 심포지엄을 내년에도 두세 차례 열기로 했다. 한국평협 40주년 기념사업은 내년 총회 전까지 각 교구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평협 40년 백서’의 집필방향과 서술내용은 첫째, 기초자료로 1968년~1997년 간 30년간은 「한국평협20년사」와 「한국평협30년사」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1998년~2007년 사이 10년은 한국평협과 각 교구평협의 매년 총회자료 중 전년도 사업실적 기록을 토대로 하며, 교회운동과 단체들의 활동상황도 대상으로 삼아 「한국평협30년사」 이후 10년간의 활동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 제3차 상임위원회의 파견미사를 집전한 김희중 주교와 함께한 참석자들

백서 제목은 1. 서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제시한 친교의 교회상, 2.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 새로운 복음화 참여 2.1 교회 내부 생활, 2.1-1 ‘친교의 교회론’에 입각한 평가 =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했는가? = 본당, 교구, 전국 차원에서, 2.1-2 운동·단체 2.2 교회 외부생활, 2.2-1 인간과 사회에 대한 봉사 = 인권, 2.2-3 생명·환경, 2.2-4 민족화해, 2.2-5 가정생활, 2.2-6 정치생활, 2.2-7 경제·사회생활, 2.2-8 사회복지, 2.2-9 문화의 복음화, 2.2-10 국제협력. 3. 참여의 주체. 3.1 어린이, 3.2 소년, 3.3 청년, 3.4 장년, 3.5 노인, 3.5-1 제3 인생기, 3.5-2 제4 인생기, 3.6 여성, 3.7 병자. 4. 평신도 양성- 교육 5. 결론: 반성과 미래 비전 제시.

◆ 별책: 한국교회와 평신도사도직 세미나 1차 ~4차 또는 5차 발제와 토론문).

“한국교회와 평신도사도직” 2차 심포지엄 노길명 교수 발제, 윤선자 교수 옥현진 신부 조광 교수 토론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노길명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가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사도직활동-일제 강점기부터 이승만 정권까지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했다. 제주평협 송상순 회장(전 제주교육대학교 총장, 교육학)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노길명 교수는 "한국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운동이 1960년대 이후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의 위상과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광복 이후 한국사회

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거치면서 사회와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얻었던 귀중한 경험들도 중요한 거름으로 작용했으며, 광복 이후의 평신도활동은 한국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던 준비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6일 전주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 '한국교회와 평신도사도직' 세미나 모습. 왼쪽부터 조광 교수, 노길명 교수, 송상순 회장, 옥현진 신부, 윤선자 교수 발표한 조광 교수의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 사도직: 박해시대의 교회를 중심으로>에 이어 한국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추적한 이날 노길명 교수의 발제에 대해 윤선자(전 남대 사학과) 교수와 옥현진(광주가톨릭대학 교수) 신부, 그리고 조광(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노길명 교수의 발제문 요지이다.

한국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운동- 일제강점기부터 이승만 정권까지를 중심으로

평신도사도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교구장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평신도의 정체성 및 위상에 대한 태도 △종교에 대한 국가 정책이나 정치권력에 대한 태도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대응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평신



도들의 역량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제 강점기의 평신도사도직 운동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 노길명 교수 평신도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교회의 인식 부족, 정치권력의 철저한 종교 통제와 억압 정책, 일제의 침략과 식민 상황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수용적 태도와 정치적 불간섭주의, 그리고 오랜 박해과정을 통해 형성된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신앙태도와 함께 주로 하류계층으로 구성된 신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박해 속에서도 한국교회에 생명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어오던 평신도사도직 활동은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침체된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교회의 성격 변화와 평신도사도직 운동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8·15 광복이었다. 광복과 더불어 이뤄진 교구장의 본토인화와 민족사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 다종교 상황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 간 경쟁,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치권력의 친화적 태도와 협조 요청 등은 한국교회가 민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교회가 활발히 전개한 두 가지 중요한 활동, 즉 전후 복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활동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은 교회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의미와 역사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활발하게 조직되기 시작한 가톨릭학생회와 여러 평신도 단체들, 그리고 레지오 마리애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등과 같은 평신도사도직 운동단체들은 평신도들의 결집과 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광복 이후 한국교회에서 전개된 여러 형태의 평신도사도직 운동들은 비록 그 규모나 수준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회 평신도사도직 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평신도사도직 운동이 1960년대 이후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의 위상과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광복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모색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이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 이후 평신도 활동은, 평신도사도직 운동은 물론 한국교회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준비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정률 평화신문 기자/서울평협 홍보분과위원 요약)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학기 개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공의회과정’ 1학기 15주 과정에 이어 지난 9월 4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학

기를 시작했다. 이번 2학기 과정은 서울평협이 평신도 교육을 체계화해 실시하기로 한 평신도학교의 과정 중 하나로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15주간 실시되고 있다. 현재 170여 명의 수강생이 제2의 성령강림 사건이라 불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을 공부하고 있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수도자와 학생은 7만원으로 할인된다.

공의회과정은 내년에도 서울평협이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함께 공부하지 못할 사정에 있는 지역 등의 신자들을 위해 서울평협 홈페이지 (www.clas.or.kr) 동영상 자료실에 전 과정을 올려놓았다. 2학기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4 주교교령(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조규만 주교) ▲ 9/11 사회매체 교령(평화방송 · 평화신문 주간 김영춘 신부) ▲ 9/18 비그리스 도교 선언(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의신학 교수 박준양 신부) ▲ 10/2 수도생활 교령(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유수일 신부) ▲ 10/9 평신도교령(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 ·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 ▲ 10/16 선교 교령(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선교학 교수, 쌍문동성당 주임 김준철 신부) ▲ 10/23 동방교회 교령(박준양 신부) ▲ 10/30

일치교령(가톨릭대학교 교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장 김영국 신부) ▲ 11/6 사제양성 교령(가톨릭대학교 신학부총장 정의철 신부) ▲ 11/13 사제생활 교령(정의철 신부) ▲ 11/20 종교자유 선언(한홍순 교수) ▲ 11/27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성심수녀회 최혜영 수녀) ▲ 12/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종교간 대화(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노길명 교수) ▲ 12/11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한국교회(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광 교수) ▲ 12/18 2학기 수료식, 종합토론(민병덕 신부, 한홍순 회장)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서울평협 ‘2007 선교대회’ 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주제로 ‘2007 선교대회’를 열었다. 2003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선포한 ‘복음화 2020운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항구하게 선교의 열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이날 대회에는 서울대교구 평협 임원들과 교구 내 각 본당 사목협의회장, 선교관련 분과와 단체장, 각 교구 평협회장, 전국과 교구 단체장 등 600여 명이 함께 했다.

정진석 추기경, “복음화 2020운동에 힘써주길...”

파견미사를 집전한 정진석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서울대교구의 놀라운 성장은 모두 신자



▲ 2학기 15주간 일정의 공의회과정 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자들

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며 “지금까지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복음화 2020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한홍순 평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정 추기경은 4년 전인 2003년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개최한 선교대회에서 「복음화 2020 운동」을 제창해 우리 교회의 선교활동의 지표를 제시하시고 그 선두에 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고 “우리가 2020년까지 전체 인구 20% 복음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복음화 2020 운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사도 4, 20), 말한 것을 우리 자신부터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홍순 회장은 휴가중인데도 오늘 선교대회 기조강연 준비를 흔쾌히 응해 준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와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이반 디아스 추기경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장관 이반 디아스 추기경 축하 메시지 보내와

이날 선교대회에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이반 디아스(Ivan Dias) 추기경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한국의 비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더 많이 교회의 품으로 데려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 2007 선교대회 파견미사에 강론을 하는 정진석 추기경

“더욱 효과적인 복음 선교 방법의 모색을 바란다”며 선교일꾼들을 격려했다. 디아스 추기경은 선교에 불림을 받은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설명하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와 특히 선교사들에게 긴밀히 협조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덕에 대한 새로운 열성을 자극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220여년 전 평신도에 의해 서 한국교회 창설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평신도들이 역동적인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교황청 인류복음화성(人類福音化省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은 바티칸시국의 행정 부서로서, 선교지방이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지역 교회들을 전반적으로 보살피고 관장한다. 이반 디아스 추기경은 1980년대 후반 한국주재 교황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인도 출신 고위 성직자이다.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 기조강연에서 냉담자와 청소년 복음화 강조

주한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주제 강의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뿐이시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이번 선교대회에서 채택된 이 주제는 우리를 교회의 본질 중 핵심으로 인도해 준다고 전제한 체릭 대주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 말씀을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라고, 즉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제2차



▲ 주한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의 기조강연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와 특히 평신도가 선교활동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대해 특별히 헌신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선교 임무를 확인하고 있다”(교회현장 「인류의 빛」, 17, 33항 참조)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존엄함에서 나오는 의무이며, 세례를 통해 ‘신앙인은 그들 자신이 사제, 예언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삼중 사명에 참여하는 것’(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그리스도인」, 14)이므로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CIC, 교회법전, 제225조: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적 활동」 6, 13)고 강조했다.

에밀 폴 체릭 교황대사는 평신도의 임무와 관련된 영역은 광범위하다면서 “교회 내에서

평신도의 활동 범위도 역시 매우 넓어 가두선 교단과 레지오 마리애, 카나 혼인교리, 매리지 인카운터와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소속의 다른 많은 단체들과 같이 역동적인 선교로 가득 찬 교회운동들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이번 선교대회를 계기로 시급히 고려해야 할 두 부류는 많은 냉담자들과 청소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세례를 통해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다고 말하면서 “이 점은 물론 앞으로 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선교의 주된 목표는 교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어야 하며, 바로 가정에서 믿음이 실천되고,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하게 마련이고, 이것은 다시금 모든 인간적 삶이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증진시켜줄을 의미한다”면서 “모든 개별 가정이 잘 준비해서 참된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증거할 때, 모든 프로그램들이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교체험 사례발표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체험사례 발표를 듣고 있는 2007 선교대회 참석자들

이날 대회에서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한 가족이 모두 한국에 와서 선교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에밀리오 망가노씨(네오카테구메나토 운동) 부부를 비롯해 미국 줄리아드 음대 출신으로 뉴잉글랜드 음악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짐 하버드씨와 서울대교구 화곡본동성당 선교분과장 노광바울라씨, 그리고 서교동성당 청년사목회 이효상 사도 요한 회장 등이 구체적인 선교사례를 발표했고, 연극인 이원희씨가 룻기를 주제로 한 모노드라마 ‘나오미의 노래’를 공연했으며, 가수 바다와 탤런트 최재원 형제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신앙인들의 영상메시지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2007 선교대회’에는 오덕주, 정기수 한국평협 부회장(광주대교구 평협 회장)과 김승선(춘천평협 회장), 최중우(인천평협 회장), 윤봉옥(원주평협 회장), 심재기(한국 꾸르실료협의회 주간), 팽종섭(서울세나뚜스 단장), 송영순(원주 여성연합회 회장 겸 원주평협 부회장) 회장 등이 함께 해 선교 결의를 다졌다.

‘복음화 2020기도문’과 ‘우리의 다짐’ 발표 미사 중에는 이번 선교대회 참석자 이름으로

2007 선교대회 한국 평신도들의 다짐

1. 2007년 10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2007 선교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하느님 백성과 함께 ‘복음화 2020운동’의 지혜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각오로 기도하며 “선교 임무를 쇄신하기로”(베네딕토 16세, 2007년 전교주일 담화문) 다짐한다.
2. 우리는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자라나도록 헌신해 온 모든 외국 선교사들과 한국의 성직자, 수도자, 교우들과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3.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이웃에게 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반생명적인 죄의 구조를 타파하여 온 겨레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에 적극 나선다. 그리하여 2020년까지 전체 인구의 20%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복음화 2020운동’이 더욱 더 알차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밝혀 교회가 성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의 백성들을 위한 선교 활동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적극 참여한다.
5.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여 온 겨레가 서로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북녘 동포들이 더욱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며, 이들이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주실 것을 하느님께 기도드린다.

2007년 10월 14일

2007 선교대회 참가자 일동



▲ ‘복음화 2020기도문’과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는 봉사자들

‘복음화 2020운동’ 기도

이공이공

겨레의 손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어
순교자들의 피로써 오늘의 교회를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선교 30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순교 선열의 열절한 믿음을 따라
온 백성이 함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나누며 살게 하소서.

하느님 백성된 저희들의 희생과 봉사가
주님께 드리는 제물되어
온 겨레가 주님의 자녀되게 하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하신 주님,
‘복음화 2020운동’이
이 시대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와 증거자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

‘복음화 2020운동’의 지혜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각으로 선교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과 함께 정진석 추기경이 인준한 ‘복음화 2020운동 기도문’을 합송했다.

서울평협 제3차 선교포럼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0월 8일 교구 내 각 본당 선교분과장과 위원, 레지오 간부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서울지역 연희동성당에서 제3차 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주제 아래 실시된 이번 선교포럼은 지역 순회개최의 두 번째로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인 민병덕 신부가 주제 강의를 했다.



▲ 3차 선교포럼 참석자들이 민병덕 신부의 강의를 듣고 있다.

서울평협 선교분과(위원장 김길성 카롤로)가 지난 7월 14일 광장동성당에서 마련한 동서울 지역 선교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주제 강의를 맡은 민 신부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2003년 제안하신 ‘복음화 2020운동(2020년까지 복음화율 20% 달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선교사례발표

베트남 교회도 소개

이어서 연희동성당의 안은희씨와 중계동성당의 허정애씨의 선교사례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이날 한국의 선교활동상황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던 베트남 쑤안 록(Xuan Loc) 교구의 선교담당 사제인 트란 쑤안 타오 신부와 테레사 수녀를 통해 베트남 교회의 선교상황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스안 타오 신부가 소개한 베트남 교회 현황



▲ 베트남 쑤안 록 교구 선교담당 트란 쑤안 타오 신부

은 26개 교구에 주교 30명, 사제 3,404명, 수사 964명, 수녀 13,036명이며 90% 이상의 신자가 주일 마사에 참례하고 30%의 신자들이 매일 미사에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비율은 50%에 이르고 있으며, 사제 도는 수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쑤안록 교구의 경우, 70명이 신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신학생들 중 일부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한국의 서울 대신학교에도 현재 한 사람이 유학하고 있다. 쑤안록 교구 관할지역의 인구가 280만명이고 80만명이 가톨릭 신자이고, 베트남 전체 종교 인구는 불교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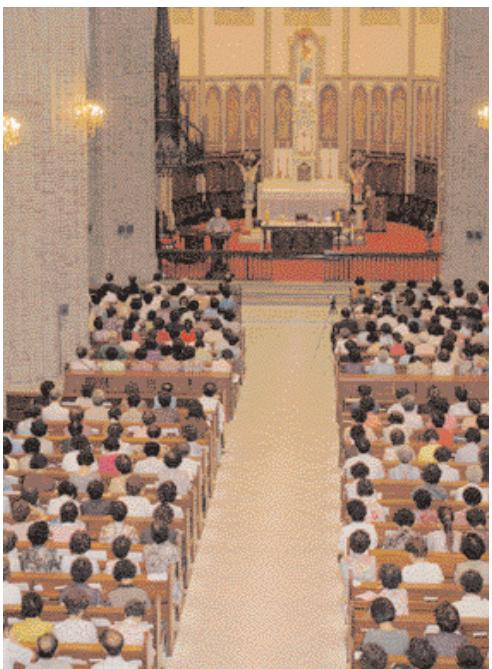
가톨릭이 600만명으로 7%, 개신교 0.5%, 이슬람교 0.1%이다. 쑤안 타오 신부는 이보다 앞서 7일 오후 평협을 방문해 한홍순 회장, 최홍준 사무총장과 두나라 교회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환담을 했다.

중서울지역 교구장대리인 염수정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선교의 사명에 대해 강조하면서 “베트남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나태함을 반성하고, 그 신심과 열심을 본받아서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파견미사의 봉헌으로 걷힌 250여만 원은 베트남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한 지향으로 타오 신부에게 전해졌다.

순교자현양 특강과 미사

순교자성월을 맞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서울대교구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몬시뇰)와 함께 지난 9월 5일, 12일과 19일, 세 번에 걸쳐 서울대교구 주



교좌
명동성
당에서
순교자
현양
특강과
미사를
봉헌했
다. 이
번 특
강은
‘순교
자 의

▲ 순교자현양 특강과 미사봉헌을 위해 명동성당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는 주제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제로 순교자 성월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그리고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주교회의의 사업에 한국평협과 각 교구 평협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기도행사로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한국순교자현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평협 최홍준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순교자 현양 특강은 한홍순 평협 회장(9월 5일, 12일)과의 인사와 홍화순 한국순교자현양회장(9월 19일)의 강사 소개가 있었다. 특강은 ▲9월 5일 전 안동교구장이며 파리외방전교회 두봉 주교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 ▲9월 12일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 ‘백색순교자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 ▲9월 19일 전 마산교구장이며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 ‘순교자들의 시복시성과 현대의 순교’의 차례로 매번 1천여 명의 신자들이 명동성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세 차례 모두 강의를 맡은 주교가 강의에 이어서 순교자 현양미사를 주례하고 최창화 몬시뇰과 민병덕 평협 담당사제가 공동 집전했으며, 12일에는 배티 순교성지 담임 이승용 마태오 신부도 함께 봉헌했다. 모든 강의는 서울평협 홈페이지(www.clas.or.kr) 동영상 자료실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평신도학교 ‘생명 · 환경과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9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평신도학교 ‘생명 · 환경과정’을 실시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자연이 복음 정신 안에서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안에 대해 나누기 위해 평협 환경 · 생명분과(위원장 한상준 안토니오)가 마련한 이번 ‘생명 · 환경과정’에는 서울대교구 내 각 본당 환경분과장 등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30여 명이 교회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생태사도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했다.

평신도학교 ‘생명 · 환경과정’은 ▲제1강의 ‘지구환경 위기의 현실과 대안 찾기’ 한면희 교수(녹색대학교,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제2강의 ‘이 시대의 농부로 살아가기’ 서정홍 선



▲ 평신도학교 ‘생명 · 환경과정’ 강의모습

생(농부, 시인) ▲제3강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황종렬 박사(평신도 신학자) ▲제4강의 ‘생태사도직이란 무엇인가?’ 조대현 신부(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의 주제와 강사로 진행됐다.

서울평협 분과위원 워크숍

지난 9월 15일 서울 명동 사목센터 2층 강당

에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분과위원회들이 ‘2008년도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한홍순 회장과 회장단을 비롯해 평협 각 분과위원장과 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담당사제인 민병덕 신부는 “목표와 목적이 명확한 계획수립이 이루어



▲ 서울평협 분과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분과위원장과 위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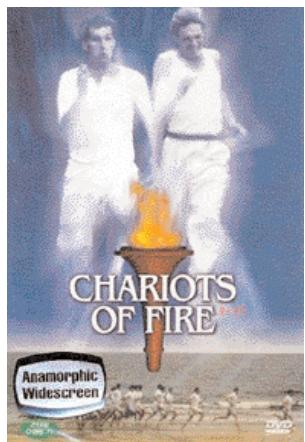
질 때 평가가 가능하다”며 내년도 사업의 수립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과거 5년간의 평협 활동을 되돌아보는 워크숍의 일정을 통해 분과위원 스스로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 등에 대해 고민해 보고 좀 더 창의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평협 ‘좋은 영화 보기’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신앙과 도덕에 어긋나는 영상물을 피하고 좋은 영화만 볼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을 지성인들에게 요청한 교황 비오 11세의 가르침을 존중해 지난 9월 19일부터 매월 ‘좋은 영화 보기’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아 교황청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과 미국 주교회의

에서 1965년부터 해마다 선정하는 좋은 영화 목록을 위주로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회의실에서 상영한다. ‘좋은 영화 보기’는 첫 영화로 1981년 작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를 10월 29일 두 번째로 1946년 작 ‘멋진 인생(It's a Wonderful Life)’를 선정해 상영했다.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월요일 저녁 7시에 상영할 예정이다.



▲ 영화 ‘불의전차’ 포스터

여성을 위한 평신도학교 ‘여성 교육’ 실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본당과 신심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행할 수 있도록 10월 10일부터 4주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여성 교육’을 마련했다. 평협 여성분과(위원장 우선희 안젤라)가 준비한 여성 교육은 교구 내 각 본당의 사목위원과 구역장, 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날 ‘현대 가톨릭교회의 모습’을 주제로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인 민병덕 신부의 강의에 이어 10월



▲ 여성교육에서 열강중인 오덕주 전 여성연합회 회장

17일에는 유병일 신부가 ‘봉사자의 영성’, 10월 24일에는 오덕주 서울평협 부회장이 ‘여성 그리스도인’, 마지막인 10월 31일에는 여성학자인 박혜란 선생이 ‘현대의 여성상’을 주제로 실시됐다.

사랑·생명·가정 사진 공모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진가회(회장 임효철 그레고리오)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사랑·생명·가정 사진 공모전’이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모한 이번 사진전에서는 총 3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사진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으며, 작년 대비 작품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작품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공모전은 문화관광부의 협찬으로 실시돼 대상(성가정상) 수상작에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 우수상(사랑상)에는 상패와 상금 50만원, 가작(기쁨상)에는 상장과 30만원, 입선(함께상)에는 상장과 상금 5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공모전을 통한 시상은 11월 14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 제2전시실에서 열리며, 선정된 작품은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시된다.

민족화해학교 2차 교육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몬신놀)와 함께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민족화해학교를 11월 2일부터 6주간의 과정으로 실시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최한 2차 민족화해학교는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일하게 될 봉사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11월 2일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 ‘사회교리를 통해 본 민족화해와 일치’, 11월 9일에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가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와 종교실태’, 11월 16일에는 장궁선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신부가 ‘분단 이전의 북한교회 그리고 현재의 북한 교회’, 11월 23일에는 최혜경 어린이 어깨동무 사무국장이 ‘내가 본 북한 사회 그리고 북한 사람’, 11월 30일에는 현인애(새터민)씨가 ‘내가 살던 고향 이야기’를 강의하며, 마지막인 12월 7일에는 서울평협 민족화해분과위원장인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통일을 향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강의에 이어 서울대교구 특수사목담당 교구장대리 겸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인 최창화 몬시놀의 종강 미사로 진행된다.

서울대교구 가톨릭교수협의회 총회와 피정 세미나

서울대교구 가톨릭교수협의회(서가협; 담당 사제 박홍 루카 신부, 최기섭 세례자 요한 신부, 회장 장호완 베드로 서울대 교수)는 지난 9월 15일(토)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피정의 집(수원시 이목동 소재)에서 정의채 몬시놀, 박홍 서강대 이사장 신부, 임병현 가톨릭대 총장 신부,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을 포함한 40 여명의 교수가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이무하 교수(서울대)를 신임 회

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전성빈(서강대), 민경현(고려대), 이경화(가톨릭대)교수를 감사로 선임하는 등 조직을 개편해 새로이 출발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의 조직이 각 관구(서울, 대구, 광주) 별로 조직화되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총회에 이어 ‘가톨릭 지성인의 역할과 영성’ 이란 주제로 임병현 총장신부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1박2일 동안의 피정세미나에서 손병두 총장은 ‘바람직한 가톨릭 지성인의 상’ 이란 주제로, 이경상 신부(가톨릭 학원법인 사무국장)는 ‘실천적 지성의 가치’란 주제로 강의했다. ‘하느님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서울대교구 조규만 보좌주교는 파견미사에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은 현재 우리의 생활로부터 시작되어야하며, 여기에 가톨릭 지성인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피정세미나를 통해 서울대교구 가톨릭교수협의회는 명실공이 서울관구 내에서 가톨릭 지성인 모임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으며, 참석한 교수들은 신자로서 본연의 의무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현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됐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교님과 함께 한 도보성지순례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요한 비안네, 담당사제 김종기 세례자 요한 신



▲ 함께 도보순례중인 성직자와 평신도

부)는 순교자 성월인 지난 9월 19일 상임위원들이 여사울 성지에서 솔뫼성지까지 16km에 이르는 ‘주교님과 함께 하는 성직자, 수도자 도보성지 순례’ 길을 함께 했다.

이날 순례에 나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250여명은 ‘거더리 사적지’ 표석 축복식과 합덕성당 유스호스텔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계족산 끼리따스 축제



대전평협은 9월 30일 대전시 대덕구 장동 계족산 일원에

▲ 후원금을 전달하는 대전평협 김윤성 회장 서 ‘2007 계족산 끼리따스 축제’를 개최했다. 대전 가톨릭마라톤 동호회가 주관한 축제는 마라톤을 비롯해 사생대회와 백일장, 숲속의 작은 음악회,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 주례 파견미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김윤성 대전평협 회장은 “교구의 신심사도직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눔의 문화축제를 열어 선교의 새 장을 열고자 함이 행사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 수익금 중 일

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교구 사회사목국에 기부하고, 대전·충남의 국방을 책임지는 32사단에도 일부 금액을 기부했다.

제1회 교구장배 축구대회

대전평협은 대전교구 축구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교구장배 축구대회'를 10월 7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테크노밸리 갑천 축구장에서 개최했다. 27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법동 성당과 선화동 성당이 각 1,2조 우승을, 천안 서부지구연합팀이 3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출전 본당의 응원단들이 대거 응원하러 와 축구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었다.



▲ 제1회 교구장배 축구대회 참가 선수단

2007 본당 회장단과 신심사도직단체장 연수회 개최

대전평협은 10월 21일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소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2007년 본당회장단



▲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대전평협 본당 회장단과 단체장

과 단체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구 평신도들이 나아가야할 과제와 60주년의 의의에 대해 박종우 총대리신부와 이용호신부(60주년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의 강의를 듣고, 한홍순 교수(한국평협회장)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또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당 사목기구의 바람직한 형태와 운영' '순교신앙과 성지 활성화 등을 위한 선교방법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그룹토의도 나누었다. 이날 총 47개 본당, 5개 단체에서 약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임 평협회장과의 만남

대전평협은 10월 25일 대전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교구장 유홍식 라자로 주교를 모시고 전임 평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3대 오덕균 회장, 14대, 17대 변평섭회장, 15대 오만진 회장, 18대 오희철 회장, 19대 김명중회장과 현 김윤성 회장은 역대 회장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갖고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9회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

대전평협은 대전 송촌동 성당 테니스동호회 주관으로 교구 설정 60주년을 준비하며 교구 내 본당과 단체의 친교를 다지고 화합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제9회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를 10월 27일(토)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와 인근 테니스코트에서 열었다.

유홍식 라자로 주교 집전으로 봉헌된 미사를 시작으로 경기는 오후 6시까지 1부와 2부로 나

뉘어 3복식으로 진행됐다. 유주교는 미사강론을 통해 “테니스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신앙을 굳건히 해서 이웃에게 더 많이 봉사하라”고 말하고 “온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결과를 넘어서 박수를 보내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경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송촌동 성당에서 마련한 점심식사는 참가자 모두를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총 21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 결과 1부 공동3위에는 궁동청팀, 천안 쌍용동, 2위는 궁동 홍팀, 1위는 보령 동대동이, 2부 공동3위는 탄방동, 서산동문B팀, 2위 서천, 1위 산성동 성당이 차지했다.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이어서 주일학교 장기근속교사 시상과 신임교사에 대한 교리교사증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해운대성당 임미선 제노베파 씨는 20년 동안 교리교사로 활동해 상을 받았고, 그밖에도 10년 장기근속자 12명과 5년 장기근속자 45명이 수상했다. 또한 새샘교육 과정을 마친 신임교사 107명은 교리교사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해 특별 시상으로 3년 이상 근속한 부부교사에게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상을 수여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부부교사들을 격려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7 교리교사의 날 시상식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정우 마르티노, 담당사제 황철수 주교)는 지난 9월 30일(일) 부산교구 청소년회관 ‘푸른나무 교

육관’에서 교구 청소년 사목국(국장 강현철 펠릭스 신부) 주관으로 열

린 제22회

▲ 근속교사 부부 표창 후 기념촬영

교리교사의 날 행사에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철수 주교와 이정우 평협회장을 비롯해 주일학교 교리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리교사들을 위한 찬양과 율동 공연이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신앙대회

10월 7일 부산교구 수호자인 묵주기도의 성모 대축일을 맞아 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본당별 신앙대회

는 신앙대회가 각 본당별로 펼쳐졌다. 이날 교구 내 전 본당에서 동시에 미사를 봉헌했으며, 미사 중에는 교구 50년을 돌아보는 영상과 황철수 주교의 기념 메시지가 상영됐다. 미사 후, 각 본당에서는 체육대회, 봉사활동, 경로잔치, 현혈운동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교구에서는 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

하는 대규모 기념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그 소요경비 일체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며 교구 관할 내 시·도에 기부했다. 모두 2억 4000만원인 이 후원금은 지난 4일(목) 부산시(1억 2,000만 원)와 5일(금) 울산시(5,000만 원)를 비롯해 김해(2,000만 원), 양산(3,000만 원), 밀양시(2,000만 원)에 각각 전달되었다. 부산시는 이 후원금을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고, 울산시는 울산시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시설에 전달한다. 이밖에도 양산시는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전달되는 등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10월 4일(목) 10:00 부산 시청을 방문한 황철수 주교는 성금 전달식에서 “낭비적이고 외형상 화려한 행사보다는 교구 역사가 50년에 이르도록 이끌어준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평협과 제단체 교구내 공소순례

부산교구 평협과 경제인회, 그리고 제단체 임원, 담당사제 5명 등 모두 50여명이 11월 4일 인보성당(주임 정상천 스테파노 신부)에서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공소(상선필, 하선필, 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본당별 신양대회

호공소)를 도보순례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금년 5월에 실시한 3박4일의 도보순례 평가회에서 선의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차원의 행사였다. 30여Km의 산길을 오르내리며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5시간의 짧지 않은 산행은 단순히 등산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기에 참가한 모두의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기쁨으로 가득했다. 또한 주일미사헌금과 신설성당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을 인보성당 주임신부께 전달하여 서로에게 기쁜 하루였다.

제10회 선교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

가톨릭선교축구연합회장배(회장 김광수 베드로, 지도 김성규 안드레아 신부) 제10회 축구대회가 11월 4일(일) 울산서부구장에서 개최되었다.

6개조로
편성하
여 4개
구장에
서 예선
전을 치
르고 결



▲ 선교축구대회에서 시축을 하는 황철수 주교
승까지 치러진 이날 경기에 황철수 바오로 주교는 축사에서 “스포츠를 통하여 선교와 봉사 정신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삼자”고 했으며, 이정우 마르티노 평협회장은 “축구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기도로 무장된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을 때 선교는 잘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평협임원과 제단체장 신학대학 방문

부산평협은 지난해부터 정기적 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신학대학방문 친교의 날 행사를 11월 3일(토) 오후에 신학대학 교정에서 가졌다. 신학대학 교수신부님과 신학생들이 한 팀이



▲ 신학대학 방문 중 운동경기 후 기념촬영

되고 평협과 제단체장이 한 팀이 되어 축구, 축구경기에 이어 미사,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며 우정의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신학대학 학장(김석중 루도비코)신부는 환영사에서 평협 임원과 신학대학 가족이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는 이 시간이 성소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신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평신도와 함께 부산교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교구설정 50주년 감사미사 봉헌



▲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감사미사

10월 31일(수) 저녁 7시부터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교구장 직무대행 황철수 주교 주례로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감사미사가 봉헌 됐다. 교구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2천여 명이 참석해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에는 부산교구 초대 교구장이자 한국교회 최고령 사제인 최재선 주교(요한, 96)의 주교서품 50주년 축하연이 열렸다. 또한 부산교구 발전에 공로가 많았던 평신도 이정우 마르띠노(부산평협 회장), 천봉남 루도비코(울산지역 전 회장), 박순호 프란치스코(주식회사 세정 회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시상했다.

국외 자매교구 부산방문과 환영행사

부산교구와 자매결연을 한 일본의 히로시마



▲ 일본과 필리핀의 자매교구 방문단과의 회의

교구(교구장 미수에 주교)와 필리핀 인판타교구(교구장 트리아 티로나 주교)단 일행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산교구를 방문했다.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감사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자매교구간의 친교 및 복음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은 국제화 시대에 알맞은 시대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문 시작부터 회의, 친교, 교구간 발전방안, 평신도간의 교류 등의 모든 분야에서 평협이

교구를 도와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가진 3개 교구간 회의에서는 한국어, 일어, 영어로 준비한 부산평협 소개 프리젠테이션의 시간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스나미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인판타 교구를 돋기 위해 부산교구에서는 '청바지 모으기 운동'을 전 교구민을 통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옷이 수거되어 몇 회로 나눠서 옷을 보내야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이르렀다. 일행은 금년 6월 1일에 하느님나라로 불려 가신故 정명조 주교 묘지 참배와 부산교구의 장례예식장인 하늘공원 방문도 있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9회 평신도 도보 성지순례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영근 라우렌시오, 담당사제 최광조 프란치스코)는 9월 8일(토) 연풍성지에서 제9회 평신도 도보 성지 순례를 실시했다. 교구 내 각 본당에서 11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연풍성지에서 출발해 최양업 토마스 사제 증거자 선종지로 알려져 있는 문경새재 입구에서부터 조령 1, 2, 3 관문을 거쳐 다시 연풍성지에 이르는 18.5km 구간을 도보로 순례하면서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 시복 시성을 위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순례했다.

75세의 고령에서부터 아빠가 밀어주는 유모 차에 탄 아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순례자들은 먼저 최양업 신부 선종지에서 시복시성 기

도를 바치면서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순례를 하는 동안 교구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의 뜻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적의 발현을 염원하는 묵주기도를 바쳤다. 장봉훈 주교는 교구청을 출발하는 평협 임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최양업 신부님은 순교자가 아니고 증거자이기 때문에 시복시성을 위해서는 기적 십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적은 신부님이 이미 천국에 계시다는 증거이며 이제 때가 되었기에 누군가 큰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요지의 인사로써 이날 행사를 축복했다.

제21회 찬미 예수님의 날 행사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0월 27일(토) 제21회 찬미 예수님의 날 행사를 청주 시민회관에서 개최했다. 18개 팀, 61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충북재활원 학생들의 재롱 잔치로 흥을 돋우기 시작해 한결 화기애애한 가운데 온 하루를 찬미했다.

해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분위기가 같아 앉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날은 10월 하순의 포근한 날씨까지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포근한 날씨와 첫 번째로 출전한 충북재활원 학생들의 온 힘을 다해 노래 부르고 땀 흘려 연습한 율동을 보여주어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평소 같고 닦은 아름다운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전례를 장엄하고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각 본당 성가대들은 정성껏 준비한 성가로 이날 하루를 찬미했다.

어르신 대학 어르신들의 흥겨운 가락으로 오후 시간을 시작한 이날 행사는 본당 성가대 출

연이 끝난 다음에도 아가페 복음성가단의 특별 출연과 즉석에서 신청한 분들의 장기자랑으로 신명나는 무대로 마무리됐다.

장봉훈 주교는 이날 파견미사 강론에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전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쁘고 부유해지며 만족할 줄 알아 행복해 진다”면서 “행복의 조건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당부한 교구장 주교는 찬미 예수님의 날 행사 참가자들을 축복했다.

청주교구 평협은 한 해에 한 번만이라도 교구 내 본당 성가대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미 하려는 목적으로 찬미 예수님의 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1987년 성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각 본당의 성가대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였고, 1989년부터 찬미 예수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빈첸시안의 날 개최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청주교구 이사회(회장 조광호 벨라도, 담당사제 김상수 블라시오)는 10월 21일(일), 청주 주성중학교 운동장과 청주 노인복지회관에서 제1회 빈첸시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교구 내 전체 빈첸시오 회원들의 한마당 잔치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55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개막미사로 시작하여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빈, 첸, 시, 오 등 4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한

이날 경기를 통해 빈첸시안들은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회원들 간의 우의를 다졌다.

레지오 마리애 선교학교

청주교구 구세주의 모친 레지아(단장 권말분 요셉피나, 담당사제 최광조 프란치스코)는 10월 8일(월)부터 11월 5일(월)까지 5주간 동안, 사직동 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애 선교학교를 열어 432명 단원들에게 선교교육을 실시했다. 팽종섭 그레고리오 서울 세나뚜스 단장, 정영근 라우렌시오 교구 평협 회장, 송열섭 가시미로 청주교구 시노드 사무국장 신부, 강성호 안토니오 교구 관리국장 신부, 최광조 프란치스코 교구 사목국장 신부 등이 각 분야별로 선교훈련을 실시해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광조 프란치스코 담당사제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배운 바를 실천하라”고 독려하면서 시대 상황에 알맞은 선교 활동을 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제3차 상임위원회의 광주개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스테파노, 담당사제 김종주 루카 신부)는 11월 2일(금) ~ 3일(토) 광주 예수고난회 명상의집에서 열린 한국평협 제3차 상임위원회의를 주관했다(관련 기사 2쪽 참조).

첫날 개회미사를 시작으로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심포지엄도 열렸는데, “한국천주교회와



▲ 상임위원회의 첫날 기념촬영

▼ 국립 5·18 민주묘지 방문



“평신도사도직”이라는 주제로 노길명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가 발제를 했고, 윤선자 교수(전남대학교 사학과), 옥현진 신부(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광 교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가 토론을 해 주었다. 이어 광주대교구와 광주평협에 대한 영상물 소개가 있었고, 제3차 상임위원회도 개최했다.

특히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전국에서 모인 상임위원들을 찾아와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 ‘평신도 영성’을 주제로 가으이한 최대주교는 “우리나라의 교회의 시작은 평신도에 의해서 이끌어 왔듯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도 공의회 문헌을 잘 이해하여 교회의 가르침대로 세상 깊숙이 들어가 거룩하게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곳 빛고을 광주에 오셨으니 좋은 인심도 맛보고 가길 바란다면서 환영을 해 주었다. 이후 친교의 시

간에는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 임원들이 정성껏 마련해 준 전라도 음식들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었다.

상임위원회의 참석자들은 둘째 날 광주대교구 총대리 김희중 보좌주교의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 한 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신 분들과 부상 및 구속되신 분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묘역 앞에서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의 현화로 일행은 고인들의 높은 뜻에 고개를 숙여 참배했다. 묘비명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며 안타까운 사연들에 숙연해졌고, 추모관에 전시된 물품들을 직접 보고 동영상과 사진들을 관람하면서 역사의 진실 앞에 당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그분들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시간들이었다. 이어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광주호를 휘감고 돌아 담양에 소재한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자연정원인 소쇄원과 한국가사문학관을 탐방하면서 옛 선인들의 여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었다.

제1기 사회교리학교 실시

광주대교구 평협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재학 신부)가 9월3일 ~ 11월12일까지 매주 월요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제1기 사회교리학교 운영에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주면서 강의에 많이 출석하도록 신자들에게 홍보했다. 이 학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신앙의 눈으로 읽고, 대처하기 위해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학습과 양성의 장을 마련

한 과정이다. 광주교구 평협은 임원 11명을 포함한 70여명이 교육에 참여해 역대 교황들이 반포한 회칙들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로 유익한 시간이 가졌다.

1강 - 가톨릭 사회교리란 무엇인가 : 9/3
최창무 대주교(천주교광주대교구장) 2강 - 사목현장 : 9/10 김정용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3강 - 새로운 사태 : 9/7 김어상 교수(서강대학교) 4강 - 민족들의 발전 : 10/1 김어상 교수(서강대학교) 5강 - 어머니요 스승, 지상의 평화 : 10/8 이재희 신부(우산동성당 주임) 6강 - 사회적 관심 : 10/15 김재학 신부(광주정의평화위원장) 7강 - 노동하는 인간 : 10/22 김재학 신부(광주정의평화위원장)

8강 - 사십주년 : 10/29 김어상 교수(서강대학교) 9강 - 백주년 : 11/5 김재학 신부(광주정의평화위원장) 10강 - 수료식, 미사 : 11/12



▲ 제1기 사회교리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

최창무 대주교(천주교광주대교구장)

● 지구평협 활동

▷ 목포지구평협 평신도 영성강좌

광주대교구 목포지구평협(회장 김경민 요한, 담당사제 고재영 신부)은 10월 21일(주일) 저녁 7시 목포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강의로 ‘평신도 영성강좌’를 실시했다. 목포지구 내 12개 본당 25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은 ‘그리스도



▲ 영성강좌를 하는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사제직과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자신의 뜻을 실천하는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에 대한 강연을 했다.

▷ 북부지구평협 순교자현양미사 봉헌

광주대교구 북부지구평협(회장 조재현 다니엘, 담당사제 순병현 신부)은 9월 20일 북부지구 관내 15개 본당 사제와 사목협의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해박해 진원지인 곡성옥터 기념성당에서 순교자현양 미사를 봉헌했다.

▷ 광산지구평협 순교자현양의 밤

광주대교구 광산지구평협(회장 신현식 바오로, 담당사제 송홍철 신부)은 9월 21일 월곡동 성당에서 저녁미사 후 순교자현양의 밤 행사를 갖고 순교자현양회원가입도 적극 권유했다.

▷ 서남부지구평협 체육대회 개최

광주대교구 서남부지구평협(회장 이종효 이레네오, 담당사제 진용민 신부)은 11월 4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9개 본당 300여명이 참여

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족구, 배구, 줄넘기, 육놀이,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친목을 다졌다.

● 단체평협활동

▷ 한국가톨릭 운전기사사도회 제4회 전국체육대회



▲ 운전기사사도회 전국체육대회 경축미사

담당사제 안성완 신부(은)는 10월 3일 공단체육공원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럭비공축구, 족구, 릴레이, 육놀이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전을 펼쳐 준우승은 서울대교구, 종합우승은 수원교구에서 차지했다. 전국체육대회는 전국협의회 회장(김병호 스테파노)이 소속된 교구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관계로 광주교구 주관으로 개최해 전라도 음식인 홍어 맛으로 환대를 해 더욱 홍겨운 한마당을 이뤘다.

▷ 재속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 축일 행사

광주대교구 재속프란치스코회(회장 김영임 글라라, 영적보조자 조기영 신부)는 10월 3일 광주지구회관에서 세라핌적 사부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원의를 새롭게 하며 성자의 가르침이 아름답



▲ 성프란치스코 축일 미사봉헌

게 꽃피는 형세적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친교

의 행사를 가졌다.

▷ 제6회 빛고을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 장애우들과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게임

광주 대교구 장애인 복지 협의회(회장 윤남

님 수녀, 담당사제 이재술 신부)는 10월 13일 (토) 광주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제6회 빛고을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

시각장애인선교회, 엠마우스복지관, 소화성 가정 등 교구 내 16개 장애인시설 단체에서 약 650여명이 참가해 화합의 한마당으로 ‘지구를 굴려라’, ‘협동 공 튀기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장애우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 2007 광주추계성령대회

광주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회장 노성섭 토마스아퀴나스, 담당사제 남재희 신부)는 10월 8일 염주동성당에서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7 광주추계성령대회’를 가졌다. 이날 “하

는 일마다 잘 되리라!”라는 주제로 인천교구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의 강의가 있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7 교구 사목연수



▲ 2007 교구 사목연수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송상순 베드로, 담당사제 고병수 요한)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한림읍 금악리 소재 성 이시돌 회관에서 실시한 교구 사목연수에 참가했다. 교구 내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한 이번 사목연수는 ‘성공하는 본당공동체의 구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려 교구장 강우일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31명, 수도자 42명, 평신도 83명 등 총 153명이 참가했다. 황종렬 박사(미래사목연구소)의 ‘한국천주교, 현재의 동향’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본당별 소공동체 사례 발표, 2008년 본당사목계획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성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성당 신축 기공식

제주교구 평협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용수성

지(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에서 교구장 강우일 주교 주례로 ‘성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 성당 신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2006년 11월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 개관에 이은 후속 사업으로 결실을 보게 된 이날 행사에서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성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 받고서 처음으로 밟은 이 땅에 이제야 기념 성당을 세우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당신의 순교로 이 땅에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천당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 바로 옆에 세워지게 되는 기념 성당은 건축면적 432.12m²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생명 평화의 섬 제주’ 만남 행사

강우일 주교는 11월 9일 오후 5시 30분에 ‘2007 제주평화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도법스님(생명평화결사 탁발순례단장, 지리산 실상사 전 주지)을 주교관에서 만나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화두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주교는 “참된 평화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 생명 존중과 자연보호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도법 스님은 “현재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



▲ 합의문 서명 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

은 창을 날카롭게 하면 방패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힘의 논리, 싸움의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화답했다.

공개 대담에 이어 생명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 범종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 마련, 21세기 대안 문명으로서 생명평화 생활화, 2년마다 열리는 제주 평화포럼 기간 동안 범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제 시민 생명포럼’ 개최를 약속하는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실천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제주교구에서 김창훈 총대리 신부(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병수 신부(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목국장), 임문철 신부(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회원. 중앙본당 주임), 현문권 신부(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위원. 사목국차장)가 생명평화 측에서는 도법 스님, 김민해 목사(생명평화 결사연대 위원장), 수지행 사무국장(생명평화결사) 등이 함께 했다.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제20주년 기념 한·일운영위원회 후쿠오카에서 개최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마티아 신부)는 일본 ‘성마리아병원 그룹’과 해마다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가톨릭의료사업 교류위원회를 지난 10월 17일에서 2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족시켰다.

한일교류 20주년을 맞이해 성대하게 이루어진 이 행사에 한국측은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장 최영식 신부(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를 비롯해 박장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부회장), 남궁성은 교수(이사), 박호란 교수(이사), 정수교 교수(사무총장) 등 7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측은 특별히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초대 회장 김대군 신부와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윤경철 신부,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인 조규상 교수가 초청됐다.

후쿠오카 성마리아병원 ‘눈의성모 성당’에서 제20주년 기념미사와 기념식수, 기념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일본측은 성마리아병원 이데 요시오 이사장 외 관계 임원 13명이 참석해 양측 간의 협약 체결과 인간생명 존중의 가톨릭이념 실천을 위한 의료 활동 즉, 호스피스 관련 공동연구, 해외의료선교 공동참여 등 기존의 한일교류사업인 연수, 파견, 교육에 양국이 공동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한국측은 해외의료 선교 사업과 생명윤리 교육과정과 정보화에 관한 내용 등을



▲ 한·일 양국 선물교환



▲ 한·일 가톨릭의료사업 교류위원회 발족식

발표했으며, 일본측은 한국의 IT 기술과 생명 윤리대학원 과정에 관심을 보였고 양국의 회 보 교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정 보화와 관련해 2007년 중 이사진과 의료진이 방한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견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년을 이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제1대 고(故)이데 이치로 이사장과 제2대 고 이데 미찌오 이사장을 기억하고 미사를 봉헌했으며 양국의 발전과 우정 깊은 교류를 다짐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2008년 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7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세미나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북도 무주 리조트에서 2007 전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11.22 목) 오후 5시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해외의료선교사업 보고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둘째 날(11.23 금) 기념미사에 이어 조천제 원장(한국블랜차드컨설팅)의 특강과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이념 구현 소개, 협회 수익사업 안내, 레크레이션, 셋째 날(11.24 토) 미사와 공지사항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07년 해외의료선교 사업

23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선교단(단장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피부과 김형옥 교수)은 지난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1일 일정으로 몽골 자갈란트에

서 7개과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해외의료선교 사업은 지난 4월 약 한 달에 걸쳐 단원을 모집해 23명을 선발했고, 임원 회의와 현지답사를 마친 후 주식회사 잠뱅이와 여러 제약회사에서 공급해준 각종 협찬품 105박스를 몽골로 선적하고 수지성모교육원에서 단원들의 피정의 시간을 가지고 발대식(8/28)을 거쳐, 선발대는 8/31에 출발하고 본진은 9/3에 출발했다.

울란바타르의 자갈란트 면 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7개 진료과목으로 총 3,511명을 진료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이문환 신부는 작년에 이어 어린이를 위한 문화행사를 진행했으며 자갈란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 각종 학습기기 및 학용품을 전달했다. 진료 중에는 주민들의 과 쇼핑으로 인해 접수의 흐름에 정체가 있었고 투약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료 이틀째에는 원활한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옴서버로 참석한 라파엘 클리닉의 방기태 전임의는 의료협회 의료진과 함께 1일 진료를 도왔으며 라파엘 업무지원팀장은 가톨릭의료협회의 의료선교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험이 실무지원에도움이 될 것 같며 감사해했다. 한편 가톨릭의료협회 선교단은 9/17일 성의교정 교수회의실에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최영식 회장신부와 함께 자체 평가회 시간을 갖고 개선점을 진단하고 차기 선교사업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몽골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혈관종 어린이와 청각장애 어린이에 대한 초청과 진료 및 수술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청년·소년 레지오단원 성지순례



▲ 도보성지순례중인 청년 레지오 단원들

레지오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담당사제 민병덕 비오 신부)는 9월2일 산하 청년과 소년 레지오 단원들에 대한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청년 레지오 단원 655명은 당시 담당사제 윤병길 세례자 요한 신부와 함께 명동 주교좌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강복을 받은 다음, 버스 18대에 나눠 타고 배론성지로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기도를 바치면서 베론 성지에 대한 설명과 묵상으로 성지의 의미와 죄양업 신부와 황사영 사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론에 도착해 11시 성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후,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신앙 선조들을 마음에 되새기고, 장대한 행렬을 지어 서울로 돌아왔다. 오는 차 중에서 각각 마침기도로 성지순례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렸다. 청년들의 호응이 좋아 812명 신청에 655명이라는 81%의 참가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날 소년 레지오 단원554명은 세나

뚜스 간부(단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외)들과 버스 17대로 각 지구 꼬미씨움 단장들의 인솔 하에 남양 성모성지를 순례했다. 비가 계속 내리는 중에 시작된 미사에서 담당사제인 민병덕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신부는 어린이들의 훌륭한 미사 참례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사 후 점심 식사와 성모 동산에서 각 지구 별로 묵주기도와 14처를 돌며 성모님과 예수님이 묵상하며, 귀가 길에 올라 마침기로 하루 성지순례를 마감했다. 소년들도 600명 신청에 91%의 높은 참가율을 나타냈다.

담당사제 환영미사 봉헌



▲ 미사 후 환영연

레지오
마 리 애
서울 무
염 시 태
세 나 뚜
스는 10
월 17일

(화) 오후 5시에 명동성당 사목센터(1층)에서 새로 영적 지도신부로 부임한 민병덕 비오 신부에 대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세나뚜스 사상 처음 있는 세나뚜스 평의원들에 의한 ‘영적 지도신부 환영 미사’에 각 꼬미씨움을 단장들을 포함해 90여명의 평의원들이 참석해 새 담당 사제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민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끝난 지 40여년이 지났으며, 한국 천주교회 차아설 200년을 지나 300년으로 가는 시점에서, 세나뚜스는 ‘교구는 본당을 위해서, 본당은 교구를 위하여’ 처럼 오늘날 뾰레시디움이 처한 상황

을 직시해 ‘보조성의 원리’로 거듭나야 하며, 소공체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서 교회를 위한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미사에 이어 별관에서 가진 환영연에서 모든 평의원들은 담당사제에게 영육 간에 많은 성모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축하와 각고미씨움의 인사가 있었다.

직속 꾸리아단장 직책교육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10월20일 오후 4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1박2일에 걸쳐 직속 꾸리아 단장 79(시청97명)명을 대상으로 꾸리아 단장 직책 교육을 의정부 교구 한마음 수련원에서 실시했다. 20일 저녁부터 시작기도와 저녁기도로 시작했다. 식사 후 7시부터 세나뚜스 팽종섭 그레고리오 단장은 꾸리아 단장의 사명을 연속된 3시간에 걸쳐 자신의 경험과 ‘한국 레지오의 비전’에 대한 열띤 강의에서 참석한 꾸리아 단장들의 집중된 시선을 잊지 않았다. 이어 이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여, ‘꾸리아 교육의 허와 실’, ‘교육의 결과’, ‘내년도의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과 정보 교환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소성무일도와 시작 기도로 일과를 시작해 식사 후에는 전날 토론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수많은 정보 교환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서 계속된 조천제 교수의 리더쉽 교육은 그의 저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를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점심 식사 후에 영적 지도자이신 민병덕 비오 신부로부터 ‘레지오와 만남의 의

미’를 듣고, ‘동기와 표현 방식’에 대한 깊은 강론과 제2차 바티칸 공의 문헌과 ‘레지오 마리애 운동’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의미 있는 강론이 있었다. 오후 3시에 민 신부님의 주례로 파견미사와 ‘마침 기도’를 바침으로 끝맺었다.

동정

한홍순 회장, 이탈리아 친선공로 훈장 받아

한홍순(토마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마시모 안드레아 레제리 이탈리아 대사로 부터 이탈리아 친선공로 훈장(Order of Star of Italian Solidarity)을 받았다.

교황청 그레고리오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외국어대 교수로 재직 중인 한 회장은 한국과 이탈리아간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회장은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통해 이탈리아 경제·사회 전반을 소개하는 한편 특별히 한국·이탈리아 수교 120주년을 맞아 2004년과 2005년 각각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열린 기념 심포지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친선공로훈장은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훈장 가운데 하나로 문화, 학문, 과학 분야 등에서 한국, 이탈리아의 관계 향상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주고 있다.

한회장은 “이탈리아는 제2의 고향이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라며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이 훈장을 주신

이탈리아 대통령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평협 정기수 부회장 정년퇴임

한국평협 정기수(스테파노) 부회장(광주평협 회장)은 지난 7월 광주병무청 공직에서 정년 퇴임하고 압해정(丁)씨 종친회 총무직을 맡았다. 압해정씨는 신앙 선조의 한 분인 ‘하느님의 종’ 정약종(丁若鐘) 아우구스티노 순교자 집안이다.

수원교구 평협 회장에 정태경 안산대리구

회장 선임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0월 13일(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끝나는 안병철 회장 후임으로 안산대리구 평협 정태경 마티아 회장을 선임했다. 수원교구 평협 회장은 6개 대리구 평협회장과 1개 평단협 회장, 현직 평협 회장단 3명 등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대구평단협 회장에 이해도 대구 세나투스 단장 선임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10월 27일(토) 총회를 개최하고 이용기 회장 후임에 이해도 안젤로 대구 세나투스 단장을 선출했다.

류덕희 평협 고문 아들 결혼

류덕희(모세) 한국평협 고문(경동제약 회장)은 지난 10월 20일(토) 서울 그랜드 인터커너리 티냅탈 호텔에서 아들 기성(알로이시오) 군과 박판도씨의 딸 하연(율리안나) 양의 혼인예

식을 올림으로써 며느리를 봤다.

안병철 수원평협 전 회장 아들 혼인미사

안병철(도미니코) 전 수원평협 회장은 10월 6일 수원시 화서동 성당에서 장남 기홍(보나벤투라)군과 김세원씨 차녀 지현(루피나) 양의 혼인미사를 통해 맘며느리를 봤다.

제주평협 송상순 회장 차남 혼인미사

제주평협 송상순(베드로) 회장은 10월 12일(금)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차남 재운(스테파노)군과 고승희씨 장녀 의정(루치아) 양의 혼인미사를 봉헌하고 새 며느리를 봤다.

황성일 부산평협 부회장 3녀 결혼

황성일(안셀모) 부산평협 부회장은 오는 12월 2일(일) 서울 계동 현대문화센터 웨딩홀에서 3녀 수정양의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위(이중환)를 보게 된다.

김기수 전 서울평협 부회장 출판기념회

서울평협 전 부회장이며 서울대교구 제12지구 대표회장 김기수(안드레아) 서초동성당 사목회장은 11월 18일 평신도주일을 맞아 서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 조구만 주교 주례로 총회장 퇴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글모음집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시다’ 출판기념회를 서초동 성당에서 개최한다.

2007년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2007. 11. 18

이 땅에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1.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은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더욱 잘 깨닫고 더욱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날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오늘은 평신도가 강론을 맡아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인사드리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1968년 제정된 이래 마흔 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저는 지난 세월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인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뉘우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실행할 것을 새로이 다짐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을 잃고 진리와 생명을 거스르는 ‘죄의 구조’에 빠져 있는 테는 우리 신앙인들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기에 말입니다.

2. 우리 교회를 세운 평신도 선조들은 이 땅에 복음의 정신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 16-19)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들은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진리의 협력자”(3 요한, 8)가 되어 온 겨레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3. 이처럼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땅의 우리 평신도들은 무엇보다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평신도 교령, 13항)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하시기 위해

서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제 구실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교회는 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4. 이제 우리와 우리 이웃이 모두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5.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온갖 악의 세력에게 위협 받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우리 신자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야 말로 진정한 가정 문화를 창조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칠 힘이요 우리 교회와 사회의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6. 모든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종인이 되도록 부름 받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의 근본 임무입니다.

인권 중에 최우선적이며 근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입니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생명권의 주체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8항).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들은 특히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만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단호히 배격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가 확립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학 연구 종사자들과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작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생명을 언제나 깊이 존중하도록”(베네딕토 16세 11월 일반 기도 지향) 교황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7. 인간답게 사는 데에 종교의 자유는 없어서는 안 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어느 정권, 어느 사회, 어느 체제와 환경에서도 보장돼야 합니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면서 북녘 동포들을 걱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녘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자라나도록”(베네딕토 16세 11월 선교 지향) 교황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8. 얼마 후에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두 번째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에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우리 평신도들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촉진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여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자라나게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9.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전작시키며 복음 선교를 위해 기도와 활동으로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2007년 11월 18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